

ESPN, "투타 겸업은 혁명"

일본의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에 미국 야구계 관심 집중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3)의 투타 겸업으로 미국 야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은 24일(한국 시간) "오타니의 투타 겸업은 혁명이 될 것"이라며 오타니를 집중 조명했다.

일본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에서 투수 타자를 모두 소화한 오타니는 미국에서도 투타 겸업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타니는 우완 투수로서 시속 160km 가 넘는 공을 던지면서 제구력까지 갖췄다.

2016년 140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 1.86의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완승 타자로서는 좌중간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2016년 382타석에서 18개의 2루타와 22개의 홈런을 날렸다.

그 해 OPS(출루율+장타율)는 1.004였다. 게다가 1루까지 3.9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른 발도 갖췄다.

역사가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에도 투타에서 두루 재능을 보인 선수들이 있었다. 투타 겸업을 시도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긴 기간 해낸 선수는 없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어느 감독은 "양쪽에 모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다. 하지만 투타 겸업을 지속한 선수가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볼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메이저리그의 '진실' 베이브 루스는 선수 초기에 주로 투수로 뛰었다. 1916년 아메리칸리그 평균자책점 1위(1.75)에 올랐고 이듬 해에는 24승을 달성했다.

투수로 뛴 당시 루스는 자신이 등판하는 경기에서만 타석에 들어섰다. 1918년부터 주전 외야수로 뛴 루스는 이 때부터 등판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18년에는 20경기 등판에 그쳤고, 1919년 17경기에만 마운드에 올랐다. 1920년부터 은퇴한 1935년까지는 5경기에만 등판했다.

오타니의 도전은 그가 입단할 메이저리그 구단에게도 도전이다.

오타니를 영입하는 구단은 그가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하도록 해주는 구조를 창조해내야 한다.

투수와 타자가 몸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훈련이 크게 다른 것이 투타 겸업의 가장 어려운 숙제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빅리그에서 투수로 뛴 미카 오웬스는 내셔널리그에서 타격이 가장 좋은 투수로 꼽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

혔다. 종종 대타로 등장할 정도였다.

2013년 마이너리그에서 오웬스는 외야수로 뛰면서 14경기에 등판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하지만 투타를 겸업해 본 오웬스는 투수 타자로서 준비하는 것을 하와이와 알래스카에 비유했다.

오웬스는 "야수로 뛰려면 다리 상태를 좋게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수 쪽 훈련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타자는 매일 타격 훈련과 수비 훈련을 한다. 내야수는 땅볼 외 야수는 뜬공을 잡는 훈련을 한다.

경기를 하는 동안 야수들은 매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서 있어야 한다.

타격 훈련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기도 한다. 타격 회의에 참가해 상대 투수를 분석하고, 코치와 대화를 나눈다. 슬럼프에 빠지면 해결 방안도 찾아야 한다.

선발 투수는 야수들과 리듬이 완전히 다르다.

투수들마다 다음 등판에 맞춰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SPN은 오타니가 투타 겸업을 하게

될 경우의 시나리오도 예상했다.

1일 차에 선발 투수로 등판하고, 2일 차에는 회복을 위해 경기를 쉬면서 가장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3. 월 차에는 야수나 지명타자(아메리칸리그)로 출전한다. 이를 중 하루는 불펜 투구를 한다.

오타니가 입단할 팀이 6인 선발 로테이션을 갖추고 있다면 오타니는 5일 차에도 야수로 뛴 수 있다.

5인 선발 로테이션 체제라면 5일 차에는 휴식을 취한다. 5인 선발 로테이션이라면 오타니는 6일 차에 선발 등판하게 된다. 6인 선발 로테이션이라면 7일 차에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ESPN은 "오타니의 일정은 로스터와 다른 선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타니와 계약하는 내셔널리그 팀의 경우 오타니가 라인업에서 빠질 경우를 대비해 탄탄한 외야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감독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기꺼이 그 문제를 보고 싶다고 오타니의 투타 겸업 도전을 지지했다.

/뉴시스

무주군, 생활체육경기를 줄이어 개최... 지역 활기 '후끈'

생활스포츠의 고장 무주군이 연이은 대회 개최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6일에는 족구와 당구, MTB자전거대회가, 28일에는 수영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6일 오전 9시부터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5회 무주군체육회장배 족구대회에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무주군축구협회(회장 김진홍)가 주관하는 것으로 16팀이 1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제1회 무진장배 3쿠션 당구대회도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 간 우의를 다지고 생활체육으로서 당구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무주와 진안 장수지역 동호인 60여 명이 참가했다.

28일 오후 6시에는 2017 무주군체육회장배 수영동호인대회에 예체문 화관 수달수영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대회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 체육회와 무주군수영협회(회장 김민수)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60여 명의 무주군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해 수영 저변확대를 위해

경기(개인전 단체전)를 치를 예정이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이미경 체육진흥 담당은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키와 스노보드를 비롯한 축구와 야구, 게이트볼,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라며 "대회를 통해 1만 3천여 명이 우리 군을 다녀가는 만큼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거사

국내 첫 생명나눔 웹드라마 '뜻밖의 히어로즈' 내달 전파

국내 최초로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전파를 탄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이식관리센터와 KBS, 칸바전선 TV가 공동 제작한 웹드라마 '뜻밖의 히어로즈'가 내달 중순 네이버TV를 통해 방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후 KBS N과 소비재TV와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편당 10분 내외로 총 12회로 제작됐다.

이 작품은 각자 인대, 심장, 각막을 이식받은 뒤 초능력에 생긴 3명의 고등학생이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미스터리 히어로물이다.

에프터일랜드 최중훈, 비투비 이민혁, 아이오아이 1기 출신 김소혜 등이 출연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한 모바일,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해 생명나눔의 필요성을



'뜻밖의 히어로즈'의 출연진 최중훈·이민혁·김소혜 (사진왼쪽부터)

전달하고, 기증 서약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리기 위해 드라마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기호 장기기증지원과장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지만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드라마를 통해 기증 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MBC·KBS, 파업 여파로 연말 시상식 불투명

매년 연말이면 채널을 돌리다 시청하던 시상과 방송 3사 시상식 행사를 올리는 맘껏 즐길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MBC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했지만, 파업 여파로 시상식 준비가 여의치 않고 KBS는 양대 노조가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파업이 끝나지 않아 시상식 진행이 쉽지 않다.

◇ KBS, 연기대상만 열릴 수도
KBS는 시상과 3사 중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

KBS 노조는 2개 노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KBS노조조합(노조만

지난 1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고 18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는 경영진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KBS 관계자 등에 따르면 파업 영향이 가장 적었던 드라마 분야 시상식인 연기대상은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21일에는 예능국 간부급인 부장·팀장 11명이 교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연예대상과 가요대전'은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

◇ MBC, 긍정 검토 중

MBC는 다음 달 31일 '가요대전'을 열기로 확정하는 등 3개 시상식 개최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나머지 시상식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MBC 새 사장 선임 결과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 사장이 취임하면 드라마·예능 등 각 분야 간부진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12월 중순께나 폐야 최종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 SBS, 시상無
SBS는 연예·가요·연기대상을 예고했다. 다음 달 20일에는 연예대상, 25일에는 가요대전, 31일에는 연기대상을 연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